

PRICAI 학회 참관기 (홍진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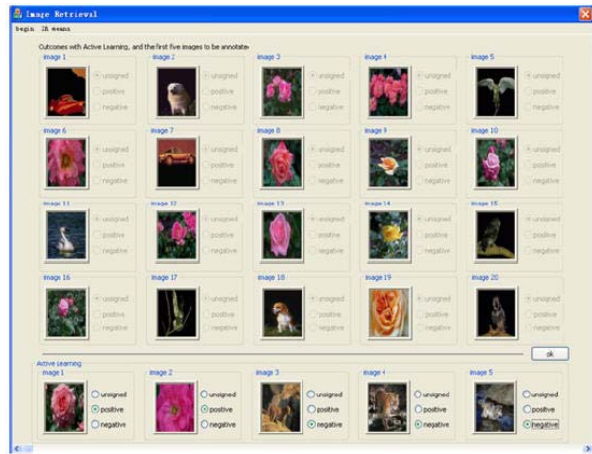
이번에 참석한 9<sup>th</sup> Pacific Ri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PRICAI)는 매년 열리는 인공지능 관련 학회이다. 지능형 에이전트와 기계 학습 등을 연구하는 현대 평양의 다양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개최가 되었으며, 올해는 중국 계림에서 8월 7일~11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학회에는 3개의 포스터를 발표할 일정이었으며, 최근 아시아나 항공의 계림 직항 노선이 생겨 여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7일 오후 7시 비행기로 저녁 11시 30분경에 도착한 중국 계림은 베트남 부근으로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운 날씨였고, 공항에서 만난 성균관대 박사 과정에 있는 조현진씨와 명지대 교수님과 같이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사전에 중국에서는 영어도 거의 사용불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가지 요금도 많다고 해서 약간의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택시비도 사전에 흥정을 하고 다행이 일행이 생겨 무사히 학회장인 Park 호텔에 도착했다. 택시 운전은 거의 묘기 수준으로 TV에서만 보던 사람과, 자전거, 오토바이, 차가 도로에 난무하고 가로등도 어두운 신기한 나라였다. 숙소에는 12시가 넘어 도착해 바로 취침했다.

8일 아침 숙소에서 제공하는 아침을 간단히 먹고, 학회 등록을 한 뒤 비어있는 오전 시간을 이용해 지역답사를 나가 약 3시간 정도를 걸었다. 시내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날이 많이 더워 많이 걷지는 못하였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많이 아쉬웠다. 백화점과 공원 등을 돌아다니고 숙소로 돌아온 후, 공항에서 만났던 일행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PRIMA 워크숍을 참석해 에이전트 관련 논문 발표를 들었다. PRICAI의 공식 일정은 9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8일은 가벼운 마음으로 워크숍을 참석하였고, 저녁에는 몇몇 박사과정생들과 함께 시내 구경을 나갔다. 중국 계림은 최근 중국에서 관광지로 특화하는 곳이지만 영어 사용이 매우 어렵고, 바가지 요금 등이 많아 많은 여행객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워 했고, 시내 구경에서도 홍콩을 따라한 야시장 등에서도 재미난 구경을 하는 한편 4~5

배 이상 가격을 부르는 모습에 점점 물건 사기가 두려워졌다.

9일 아침부터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PRICAI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9일 오전에는 워싱턴 대학의 Pedro Domingos가 Markov field 등의 내용을 다루었고, 오후에는 중국 난징대의 젊은 교수인 Zhi-Hua Zhou가 “Learning with unlabeled data and its application to image retrieval”라는 제목으로 Unlabeled 데이터를 이용한 영상검색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였다. 본 연구실에서 수행했었던 IGA를 이용한 영상검색 시스템과도 매우 유사하였으며, 최근 연구중인 사용자 모델링 등에도 적극활용할 가능성이 보였다.



20%정도의 채택율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학회였지만 학회 발표는 다른 학회에 비해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 LNCS와 관련되어 최근 중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많은 중국인과 아시아인이 무분별하게 논문을 투고해 채택율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들기도 하였다. 발표는 주로 에이전트, 기계학습, 진화기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3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 중 논문 “Automatic multi-level summarizations generation based on basic semantic unit for sports video”는 영상을 문장으로 요약하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기술은 간단하지만 전체 포물레이션은 본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었고, “Multiclass microarray data classification using GA/ANN method”의 경우에는 본인이 예전에 다루었던 GCM 데이터를 100% 완벽하게 분류하였다고 해서 주의깊게 살펴보았지만 실험에 큰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국내 ICU의 박사과정이 발표한 “A hybrid mood classification approach for blog text”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ConceptNet에 관련된 논문으로 본인도 이에 관심이 있어 저자와 다양한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 특히 ICU에서는 MIT와 연계하여 ConceptNet의 한글화 등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실제 ConceptNet 내부의 값들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도 귀뜸해 주었다.

본인은 9일에 2개의 포스터 발표와 10일에 1개의 포스터 발표가 있었다. 9일에는 Semantic Bayesian network을 이용한 대화형 에이전트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관심을 가진 몇몇 연구진과 제안한 방법의 가치와 확장성 등에 대해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 10일 오후에는 지문분류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좌장 및 몇몇 중국계 연구자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였다. 10일 저녁에는 Banquet이 있었는데, 학회측의 준비가 많이 부족해보였다. 시작과 동시에 프로그램 의장이 1시간 정도 본인이 관심하는 AI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지루했으며 중국 음식이 외국인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잘 먹질 못하였다.

10일에는 오전에 구두발표를 간단히 듣고, 학회 일정이 끝나 계림 지역 관광을 하였다.



계림은 중국에서도 절경으로 유명한데 특히 5만 원 정도하는 계림의 메인 관광코스인 이강 유람을 하였다. 약 2시간 가량 배를 타고 이강 유람을 하는데, 중간중간 명소들이 나왔고, 특히 재미있던 것은 작은 배를 타고 유람선에 달라붙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대부분 사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한두개만 팔아도 하루 이문이 남는 정도라고 하였다.

배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나마 학회에 와서 먹은 음식 중 가장 입맛에 맞았다) 중국 물건을 파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한국의 인사동 같이 중국의 각종 기념품을 파는 곳이었다. 보통 이곳에서 가격을 부르는 가격의 20~30% 정도까지 깎아야 한다고 해서 100위엔을 부르면 터무니없이 20이나 30위엔으로 깎아달라고 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살듯말듯하면서 또 같듯말듯하면 가격을 계속 깎아준다는 사실이다.

11일에는 다들 피곤해서 오전에는 내내 쉬다가 점심 때 잠깐 시내 관광 겸 선물을 구입하고 저녁에 귀국하였다. 중국에서의 학회는 개인적으로 처음이라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참석하였었는데, 기존에 갔었던 곳과는 상당히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었다.